

주요내용

▶ 대만 소비자의 키워드 10가지

- 2016년 PX-MART(全聯福利中心)가 소비자 구매성향 조사를 통해 살펴본 핵심 키워드 10가지는 친환경, 품질, 추천, 단순, 건강보양, 편리, 제사(祭祀), 체험, 기능, 독특함이었다.

▶ 불경기에도 ‘고품질’ 상품시장 급성장

- 대만의 일반 소비자들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고가, 고품질에 대한 구매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. 고가브랜드 생활필수품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7% 상승한 반면, 저가제품은 15% 하락했다. 향후 고품질 상품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.

▶ ‘친환경’ 제품에 대한 선호도 급증

-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식품안전 사고의 영향으로 청정한 환경에서 소량 생산되는 고급 유제품이 인기를 얻어 매출이 2배로 급성장하였다.
- 세계 등 생필품 품목에서도 친환경 상품에 대한 구매 비중이 높아졌다. 세계의 경우 친환경, 천연성분 상품의 매출이 전년대비 38% 상승한 반면 저가 상품은 15% 감소했다.

▶ 유통채널별 상품 구매패턴의 변화

- 이전에는 소비자가 대형마트, 소형마트,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품목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었다. 그러나 최근 소형마트 점포수가 확대되면서 편의점과 소형마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품목별 구매형태도 변화되고 있다.
- 음료류의 경우는 원래 편의점 판매가 강세였으나 전년도 편의점 음료 판매량이 3.8% 상승에 그친데 반해 소형마트에서 13.4% 성장세를 보였다.
- 반면 소형마트 판매가 두드러졌던 일반 식품류의 경우는 편의점이 20% 상승하여 소형마트의 15% 성장률을 앞질렀다. 이는 혼밥족이 증가하면서 편의점에서 간편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.

* 출처 : 대만 경제일보 2017.2.3

시사점

대만에서 900개점을 보유하고 있는 PX-MART의 소비자 트렌드조사를 통해 대만 소비자들이 고품질, 친환경, 간편함 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한국에서 대만으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이 임산물, 배, 껌, 혼합조제식품, 김 등으로 집계되는데, 앞으로 대만 소비자의 니즈에 맞추어 고급화 전략,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간편조리 식품의 수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.